



2018년 5월 13일(제875호)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거야. 함께 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노래방에서 마지막에 부르던 곡으로 유명한 015B의 ‘이젠 안녕’ 후렴 부분입니다. 추억을 간직한 채 헤어져야 하는 상황적 묘사가 적절한 노래 가사이지만 어떻게 보면 ‘헤어짐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를 가장 잘 드러내 주고 있는 가사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헤어짐을 의미하는 주님의 승천에서 제자들이 보인 모습에서도 이 자세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안녕은 ...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제1독서에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하는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말처럼, 사실 승천은 끝이 아니라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약속을 그저 막연히 기다리라는 의미는 분명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이 해야 할 임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마르 16,15)입니다.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라 능동적 기다림이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분명 ‘가야 하는 능동’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 벽차고 힘든 길 일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간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했던 시간은 ...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그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승천은 이제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희망입니다. 함께했던 시간은 이제 ‘추억’을 넘어 자신들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찾아 걸어간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그 길에 희망을 걸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승(T.아퀴나스) 신부
봉장(육군 제31사단) 성당 주임

- 제 1 독 시 사도 1,1-11
- 회 답 송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 제 2 독 시 에페 1,17-23
- 복음 보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 복 음 마르 16,15-20
- 영 성 제 송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한국의 성인 복지 124위

강완숙 콜롬바



성인명: 강완숙 콜롬바 (姜完淑 Columba)

신분: 부인, 회장, 순교자

활동연도: 1761-1801년

강완숙(姜完淑) 콜롬바는 1761년 충청도 내포 지방에서 양반의 서녀(庶女)로 태어났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지혜로움이 뛰어나고 정직하여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한다. 장성한 뒤 덕산 지방에 살고 있던 홍지영의 후처로 들어간 강 콜롬바는, 혼인한 지 얼마 안 되어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게 되었다. 이후 강 콜롬바는 신앙에 대한 열정과 극기를 바탕으로 교리를 실천해 나갔으며,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누구나 감탄할 정도가 되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전처의 아들인 홍 필립보에게 교리를 가르쳐 입교 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온갖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남편만은 입교시킬 수가 없었고, 오히려 신앙 때문에 남편에게 시달림을 받아야만 하였다.

어느 날, 강 콜롬바는 한양의 신자들이 교리에 밝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그녀는 시어머니와 아들 홍 필립보와 의논한 뒤 함께 상경하였고, 이후로는 신자들과 오가면서 생활하였다. 또 성직자 영입 운동이 시작되자, 이를 위해 노력하는 교우들에게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 주었다.

1794년 말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그녀는 주 야고보 신부에게 세례를 받고, 그들과 활동하였다. 이때 주 신부는 강 콜롬바의 인품을 알아 여회장으로 임명하여 신자들을 돌보도록 하였다. 1795년 을묘박해가 일어나자, 강 콜롬바는 자신의 집을 주 야고보 신부의 피신처로 내놓았다. 이후 그녀는 주 야고보 신부의 안전을 위해 자주 이사를 하였으며, 그때마다 그 집은 신자들의 집회 장소로 이용되었다. 윤점혜 아가타가 동정녀 공동체를 이끌어 나간 곳도 강 콜롬바의 집이었다.

1801년의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강 콜롬바는 그동안의 활동들 때문에 곧바로 관청에 고발되었고, 4월 6일(음력 2월 24일) 집 안에 함께 있던 사람들과 같이 체포되어 포도청으로 끌려갔다. 그 와중에서도 그녀는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잊지 않았다. 박해자들은, 강 콜롬바에게서 주 야고보 신부의 행방을 알아내려고 여섯 차례나 혹독한 형벌을 가하였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3개월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강 콜롬바는 신심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함께 갇혀 있는 동료들을 권면하면서 순교의 길로 나아갔다. 그런 다음 사형 판결을 받고, 1801년 7월 2일(음력 5월 22일) 동료들과 함께 서소문 밖으로 끌려 나가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이때 그녀의 나이는 40세였다.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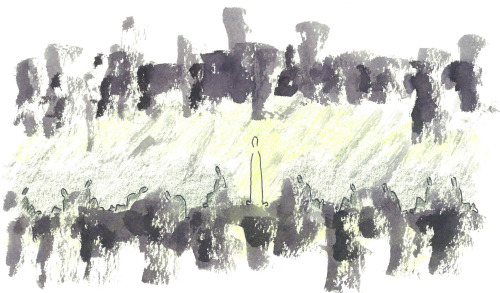
평화가 너희와 함께

평화가,
너희와 함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용기가,
너희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함께.



상화이야기

승천하시는 예수님



화가의 말년에 그려진 이 작품은 기존에 소개했던 그림보다는 비교적 최근 그림으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주제로, 평화주의자였던 그녀의 신념을 반영해, 제1차 세계대전의 많은 희생과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그림이다.

무지갯빛 날개를 한 천사들이 예수님의 몸을 받치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선홍색 옷을 입고, 십자가 모양으로 양팔을 벌리시고 계신다. 따라서 이 그림은 ‘붉은 십자가’라는 제목이 붙어있기도 하다. 배경 속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으며, 하단에는 전쟁의 희생자들이 묻힌 하얀 십자가가 가득한 묘지가 그려져 있다. 이들은 비록 죽었으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 구원에 이를 것이다.

에블린 드 모건(1855-1919)
1919년 作, 패널 위 유화, 50 X 85 cm
에블린 드 모건 재단 소유, 진시되어 있지 않음

김은혜(엘리사벳)

교 구 소 식

군중부원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주님 승천 대축일: 해군교육사 이지성 신부

- ◆ 국제군인 성지순례대회
 때: 5월 10일(목)-23일(수), 12박 13일
 곳: 프랑스(루르드), 스페인
- ◆ 수녀 히게 수련회
 때: 5월 15일(화)-18일(금), 3박 4일
 곳: 지리산 피아골 피정의 집

- ◆ 군중교구 '잇숨 생기대' 단원모집
 대상: 성가를 통한 군선교에 관심있는 청·장년
 (군 자녀 및 가족 포함)
 정기연습: 매주 화 20:00, 용산 군중교구청
 문의: 홍민영 비비안나 010-3837-5039

“군 복음화, 반침략은 열정으로” - “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